

2009년 반도체 매출액 16% 감소

가트너, 세계시장 2129억달러로 하향조정 ... 2010년에는 회복 전망

2009년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 2129억달러로 전년대비 16% 감소할 전망이다.

시장조사기업 Gartner는 11월에는 2009년 반도체 매출액이 2.2%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대폭 하향조정했다.

12월 둘째 주 발표한 예비시장 조사결과에서 2008년 반도체 매출이 4.4% 줄어든 2619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.

가트너는 “금융위기가 2008년 4/4분기 매출과 수익에 전례 없이 부정적인 충격을 가져왔다”며 “4/4분기의 반도체 매출도 3/4분기보다 24% 급감해 2001년 2/4분기에 기록했던 최대 하락률을 넘어설 것”이라고 내다봤다.

이에 따라 2009년에는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.

반도체산업협회(SIA)와 WSTS 등도 전자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반도체 시장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11월 SIA는 2009년 반도체 매출이 5.6%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.

하지만, 가트너는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 2010년부터 회복되면서 2010년에는 15% 늘어나고 2011년에는 9.4%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

앤드루 노우드 가트너 부사장은 “D램 시장은 너무나 어려워 공급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취약한 기업들은 도산이나 합병의 위기에 내몰릴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12/17>